

아이도 아빠도 장난감에 빠지다

가정의 달 맞아 다채로운 로봇·인형 전시회

광주신세계갤러리 내달 23일까지 '로봇판타지' 현대미술 작가 6명 설치 로봇 등 40여점 전시

무등현대미술관 내달 5~6월 14일 '키덜트'전 피규어·프라모델·유럽비스크·블럭 등 선보여

광주롯데갤러리 내달 5~24일 '캐니멀'전 강릉으로 동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백중기 작 '빨간 장갑을 낀 3명의 아톰'



고근호 작 '행복한 마법사'



EBS 애니메이션 '캐니멀' 캐릭터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갤러리·미술관에서 어른부터 어린이들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로봇·인형 전시를 연다. '태권브이', '아톰' 등 추억 속 로봇을 감상하고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광주신세계갤러리 '원더랜드-로봇판타지'=5월23일까지 현대 미술 작가 6명이 제작한 입체·회화·설치 로봇 40여 점을 세 가지 색선으로 나눠 선보인다.

로봇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는 백중기와 위재환 작가, 유년시절 영웅 캐릭터를 현대적으로 재탄생 시킨 신이철과 성태진, 나만의 '창작로봇'을 만드는 고근호와 김동인 작품들로 구성했다.

백중기와 위재환 작가는 유년시절 즐겨보던 '로봇' 만화에서 모티브를 얻어 추억 속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입체적인 이미지로 시각화 시켰다. 백 작가는 루비비통 장갑을 낀 아톰을 비롯해 각종 명품으로 치장된 태권브이를 부조 작품으로 제작했다. 캐릭터 피규어 수집이 취미인 위 작가는 자작나무, 흑연 등으로 '자이언트'와 '태권브이'를 사람 크기만 만들어 눈길을 끈다.

신이철·성태진 작가는 어릴 적 본 로봇을 성인이 된 본인과 동일시한다. 신 작가가 만든 사이보그 용이 그려진 조선시대 백자는 배가 블록 나옴 본인을 형상화했다. 현재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40~50대의 모습이다. 성 작가는 체육복을 입고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백수가 된 태권브이를 캔버스에 담았다. 청년들이 고민하는 불확실한 미래를 유쾌한 방식으로 풀어냈다.

고근호·김동인 작가는 스틸과 나무로 만든 '창작로봇'을 통해 각기 다른 감성을 보여준다. 원색을 사용한 고 작가의 로봇은 회사에 출근하고, 소풍을 가는 등 우리 일상을 대변하고 있다. 김 작가는 자연을 지키기 위해 인간과 대립하는 나무 로봇 이야기를 들려준다.

무기를 든 로봇은 위협적인 모습에 비해 순박한 표정으로 따뜻한 심성을 전한다. 문의 062-360-1271.

◇무등현대미술관 '작가들의 TOY ART MUSEUM'=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도 즐길 수 있는 키덜트(어린이와 어른의 합성어)특별전을 5월5일부터 6월14일까지 준비했다.

피규어, 프라모델, 유럽비스크(점토로 만든 유럽식 인형), 블럭 등 작가와 콜렉터들이 만들고 수집한 180여점을 전시한다. 강민우 작가(프라모델), 박대명 콜렉터(피규어), 박민재 콜렉터(피규어), 이명진 작가(실바니안), 정희주 작가(유럽비스크), 조현준 작가(액션피규어), 최희원 작가(블럭·피규어) 등 작가·콜렉터 7명이 참여한다. 작품들은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다양한 시각적 연출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전시 해설을 통해 수집품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해석,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다. 작가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보는 시간도 갖는다. 입장료 성인 5000원, 아동(만 6~12세) 2000원. 매주 월요일 휴무. 문의 062-223-6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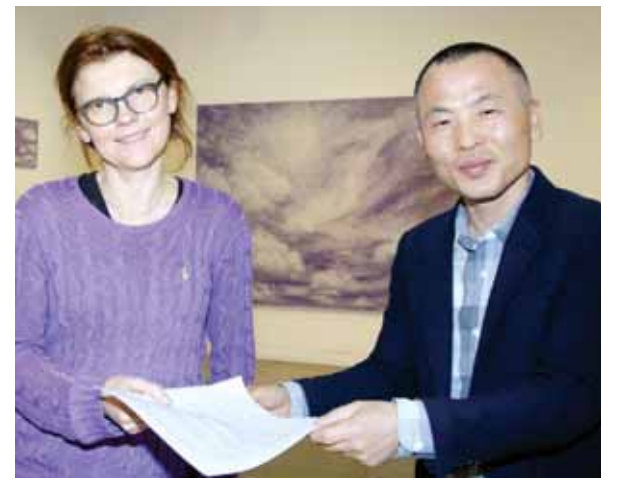
◇광주롯데갤러리 '꼭꼭 숨어라 캐니멀'=이번 전시는 EBS에서 방영했던 애니메이션 '캐니멀'을 소재로 꾸며진다. '캐니멀'은 강릉(Can)과 동물(Animal)의 합성어로, 강릉으로 만들어진 동물을 뜻한다.

5월5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전시에서는 작가들이 만든 캐니멀 캐릭터 40여점을 만날 수 있다. 다양한 강아지 '아톰', 핑크색을 좋아하는 공주병 강아지 '미미', নিজ 고양이 '피지', 엉뚱발랄한 토끼 '토끼', 먹보팬인 '팽' 등이다.

강릉을 이용해 좋아하는 동물을 만들어보는 애니메이션 에피소드 아트북, 페이퍼 토이 만들기 체험을 비롯해 포토존, 아트상품 판매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기획했다. 문의 062-221-180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구름 화가' 강운 프랑스 진출한다

리비넥 갤러리와 전속계약 '에콜 데 피' 등 잇단 전시회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강운(오른쪽) 작가와 리비넥 프랑스 프랑수아즈 리비넥 갤러리 관장.

홍상수 감독의 '밤과 낮'은 구름을 그리는 화가가 프랑스 파리에서 머물며 겪은 일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 모티브는 강운 작가에게서 얻었다. 영화 속 등장한 그림이 강 작가의 '공기와 꿈' 시리즈다.

강 작가가 영화처럼 실제 프랑스로 진출한다. 최근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Touch the air'를 주제로 초대전을 연 강 작가가 프랑스 프랑수아즈 리비넥 갤러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15~18일 광주를 방문한 프랑수아즈 리비넥 관장은 신세계갤러리에서 강 작가와 세부적인 항목을 조율한 후 계약했다.

계약에 따라 강 작가는 오는 5월17일~7월17일 리비넥 관장이 운영하는 파리 팜티에브르 갤러리 개인전을 시작으로 아트스페이스 '에콜 데 피'(5월 24~28일, 7월8일~9월3일)에서 전시를 연다. 또한 '에콜 데 피'에서는 5월25~28일 프랑스 평론가들이 참여하는 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시에서는 갤러리 측이 직접 선정한 '공기와 꿈' 21점, '물 위를 걷다' 16점 등 총 37점을 선보인다.

파리 대표 미술관 그랑 팔레(Grand Palais)에서 열리는 파리 아트페어 'Art Paris Art Fair'에

도 참여해 프랑스 콜렉터들을 만난다.

이번 계약은 지난 2015년 서울에서 열린 한국 국제아트페어에 인연이 됐다. 당시 강 작가는 37m 벽을 100호 이상 대작으로 채웠고 이를 본 리비넥 관장이 먼저 연락을 했다. 방화재 작가 등에도 전속계약한 리비넥 관장은 예전부터 동양적 미(美)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지를 이용하는 강 작가의 작품에 인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광주국제아트페어'에 리비넥 갤러리 수석 큐레이터가 방목해 계약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갔다.

강 작가는 계약 체결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홍보 뿐 아니라 작품 운송, 보험, 액자 제작, 숙박, 항공료까지 전시에 관한 일체를 지원받기로 했다"며 "프랑스 갤러리가 계약서를 내린다고 무조건적으로 서명하기보다는 지역 미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있는 광주는 특별한 공간이다"며 "앞으로 후배들이 해외에 좋은 조건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태희 개인전

금호갤러리 28~5월 9일



'겹'

이태희 작가가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겹'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실제 나무 조각, 껍질을 특수한지에 탁본하듯 표현한 프로타주(Protage) 기법 작품을 선보인다.

이 작가는 한국화를 전공하면서 산과 강을 주로 그렸다. 사계절 변화하는 자연과 세월의 따라 변해가는 인간의 삶이 같다고 느낀다.

나무껍질이나 나뭇잎을 한지에 탁본하는 방식으로 전통산수화를 표현하고 있다. 붓질을 여러 번 하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추상적인 형태를 가미해 작품을 완성시킨다.

작품 '겹' 시리즈는 나뭇잎을 찍어낸 먹의 형상이 먼저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자연의 기운을 담고 있다. 또 돌산, 바위 등을 초현실적인 색채로 묘사하며 여백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실험적인 작품도 전시한다.

이씨는 조선대 미술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조선대 미대 70주년' 기념전 등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예매회, 선묵회, 한국화 동질성회복회, 우리민족문화예술연구소, 원우회, 광주청년미술작가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360-843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등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